

코스피 2700에 거래대금 증가... 증권株, 실적개선 기대감

KRX, 울들어 거래대금 매월 증가
1월 19.4조→지난달 22.5조 '껍충'

KB·미래에셋·NH투자 등 5곳
1분기 브로커리지 이익 1조 넘어
"투자의견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증권사들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금리인하 기대, 밸류업프로그램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증권주들의 주가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2600선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만에 2700선까지 오르는 등 상황이 좋아지면서 울들어 거래대금과 투자예탁금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월 일평

균거래대금은 19조3710억원, 2월 22조 4146억원, 3월 22조493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2월 기준 54조원을 넘어섰고 3월에 약 57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1분기 5개사 합산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이 1조42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5259억원으로 2.0% 증가하고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수지는 5162억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공개(IPO)

활황에 따른 브로커리지 업황 회복을 반영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전망된다"며 "자체적인 주가가치 제고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의 증시 활성화 노력에 힘입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시 시가총액 상승과 더불어 회전을 개선은 중장기 거래대금 확대를 기대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진했던 IB 부문도 채권 발행 수요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증권사의 IB 부문 실적은 2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기대감 증가로 올해 증권사들의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 9만7800

원에서 12만800원으로 23.52% 상승했으며, NH투자증권은 1만160원에서 1만1460원으로 12.80% 올랐다. 한국금융지주(11.15%), 미래에셋증권(4.65%), 삼성증권(1.57%)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권사 실적에 손상 및 총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의견을 긍정적으로 상향한다"며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펀드 관련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2022~2023년 위축되었던 IB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본부장(왼쪽)과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가 협약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 서울옥션블루와 맞손 조각투자상품 출시

하나증권이 서울옥션블루와 미술품 조각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상품 발행을 위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토큰증권발행(STO) 사업 확대에 힘을 예정이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소투(SOTWO)'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올해 서울옥션블루는 앤디 워홀의 대표작 '달려 사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출시한 바 있다.

현재 하나증권은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프린트베이커리, 아이티센,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예술품, 금은, 모바일컨텐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비즈니스를 협업하고 있다.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센터장은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금융과 미술품을 결합하며 손님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삼성전자 부진 여파... 코스피 상장사 순익 40% '뚝'

상장사 2023년 결산
코스피 615개사 순이익 80.9조
영업익 123.8조, 24% 줄어들어
코스닥 1146개사 영업익 35% ↓
코넥스 114개사 매출 2.3조, 7% ↓

(12월 결산법인 '23사업연도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2023년	증감률	2022년	2023년	증감률
매출액	14,875,980	14,571,191	△2.05	28,157,130	28,251,607	0.34
영업이익	719,093	395,812	△44.96	1,639,821	1,238,332	△24.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2,589	741,725	△1.44	1,490,976	1,007,978	△32.39
순이익	613,875	750,338	22.23	1,347,622	809,074	△39.96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급감하면서 부진한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코스피, 삼성전자 부진에 역성장 구조 확대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615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3조8332억원, 80조9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39.96% 감소했다. 매출액 자체는 2825조16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0.34%) 증가했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2.86%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9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코스피 매출액 9.2%에 달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가 빠지게 된다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7조2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만 감소하고, 순이익도 65조42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30%

감소에 그친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2566조2252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2.10% 증가한다.

업종별로는 17개 업종 중 건설업(19.81%), 운수장비(15.72%) 등 9개 업종은 증가하고, 의료정밀(-51.60%), 운수장고(-9.75%) 등 8개 업종은 줄어들었다. 운수장비(76.87%), 비금속광물(32.31%) 등 5개 업종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87.06%), 운수장고(-61.61%)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기계(186.16%), 운수장비(89.20%) 등 4개 업종의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81.15%), 운수장고(-67.94%) 등 13개 업종은 순이익이 줄었다.

연결 기준 순이익 흑자기업은 전체 615개사 중 458개사(74.47%)로 전년(469개사)보다 11개사 줄었다.

◆코스닥도 영업익·순익 모두 '뚝'... 수익성 악화

코스닥도 상장사 1146개사의 영업이익이 9조4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1% 줄었으며, 순이익도 3조5845억

원으로 54.60% 급감했다. 매출액은 260조4556억원으로 1.20% 증가했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61%로 2.05%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액순이익률도 1.38%로 1.69%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업종의 이익이 8.92% 감소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IT 업종에 속하는 515개사는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92%, 52.54%, 76.48%씩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102개사(-77.97%), IT 부품 92개사(-76.69%) 등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외 제조업(0.84%), 기타 업종(2.03%)의 매출액은 각각 119조9643억원, 56조28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제조업은 17.79%, 기타 업종은 11.93%씩 줄어들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제약(-70.49%), 종이·목재(-64.82%), 기계·장비(-41.33%) 등의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결 기준 순이익 흑자기업은 668개사(58.29%)로 전년(742개사)보다 74개

사 줄었으며, 적자 기업은 478개사(41.71%)로 74개사 늘어났다.

◆코넥스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적자

코넥스 상장사 125개사 중 전기비교 가능한 114개사의 매출액은 2조2987억원으로 지난해 2조4670억원 대비 6.8%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648억원에서 2317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190억원에서 2523억원으로 확대됐다. 분석대상기업 114개사 중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3개사에 그쳤다. 전체의 62.3% 수준인 7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금리인상·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바이오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10.1%) 및 매출액순이익률(-11.0%)도 전년 대비 각각 7.5%포인트, 6.2%포인트씩 떨어졌다. 전체 기업의 자본·부채·자산 총계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8.3%로 전년 대비 8.6%포인트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godh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 첫 분배금 지급

KB자산운용, 주당 105원
KB자산운용이 6개월 간 지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지난 2일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KB자산운용은 3월 27일까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를 매

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당 10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분배율은 약 1.01%로, 해당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개월 만에 약 100만원의 분배금을 받게 된 셈이다. 분배락일인 3월 28일의 시가는 1만305원이었으나, 주가가 꾸준히 올라 4월 2일 기준 증가 1만415원으로 마감했다. 상장 이

후 분배금을 고려한 누적수익률이 5%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달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장지수펀드(ETF)다. 추종지수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이에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

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사용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부장은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인 만큼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